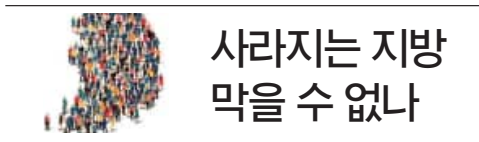


눈높이 맞는 일자리 찾아 연 1만여명 수도권으로

광주·전남, 대기업 사업장 적고 채용도 지역에서 안 해 ‘엑소더스’
미래 지향적 기업 육성·혁신도시 시즌 2 통한 공기업 유치 힘써야



사라지는 지방
막을 수 없다

<7> 청년 일자리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박현우(가명·23)씨는 졸업을 앞두고 근심이 가득하다. 4학년이지만 사실상 취업준비생인 박씨에게 ‘꿈꿀’ 얼어붙은 지역 취업 시장은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봉 수준이 만족스러운 기업 몇 곳이 있긴 하지만, 해당 기업의 미래 전망 등이 불투명해서 쉽사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 수도권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 기업들에 대한 연봉, 복지 등 기업 정보가 극히 적어 취업준비생들의 눈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순천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박씨는 최근 가족들까지 순천에서 광주로 전입했지만, 취업을 위해서는 다시 본인은 광주를 떠나야 하는 현실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에 내려온 대기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도 열악해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을 떠나는 20대는 매년 1만 명 안팎이다. 2012년 1만 9명(광주 2962·전남 7047)으로 시작해 ▲2017년 1만 1246명(광주 4098·전남 7148) ▲2022년 1만 709명(광주 3950·전남 6759)으로 매년 1만 명 안팎의 20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대기업들이 광주·전남에 사업장을 둔 곳이 없거나,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없어 지역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한 구직사이트에서 조사한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34.7%)였다. 뒤이어 네이버(34.7%)와 카카오(33.6%), 삼성바이오로직스(16.6%), SK하이닉스(13.1%) 순이었다. 이밖에 10위 권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대한항공,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CJ제일제당 등이 청년 선호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일자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로 전국에 고루 퍼져 있는 보건계열 구인시장도 지역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수도권 공략이 훨씬 용이하다고 한다.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졸업생 이미주(24)씨는 최근 수도권 보건계열기관 7곳에 이력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작업치료학과 진로는 대학병원, 아동발달센터, 치매 센터 등인데 지역에서는 채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 수도권만 지원했다”면서 “다른 지역에 취업하면 숙식비 등으로 인해 생활이 빠듯하겠지만 당장 취업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선배나 동기들도 대다수 지역을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채용시장이 좁아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2022년 9급 지방직)은 광주의 경우 17대 1로, 부산(8.46대 1)과 대구(12대 1)보다 크게 높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안현택(27)씨는 “지역에서 먹고 살 만한 직업은 공무원뿐인 것 같다”면서 “최근 저임금 논란 등으로 인기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빗가람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과 일부 향토기업들은 지역 인재 채용 등을 통해 그나마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에게 ‘희망’과 숨통을 터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공단 등은 매년 채용설명회를 열고 지역 청년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 빗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은 지역 취업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 취업준비생들이 쫓는 ‘1순위’ 직장이라는 점에서 지역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취업자리로 꼽힌다.

전남대 사학과 4학년 이지현(23)씨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이지만,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는 것 보다는 지역의 빗가람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우, 동원그룹, 광주은행 등 향토기업들도 선망의 취업처로 꼽히지만, 경쟁률이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에서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GGM(광주글로벌모터스)도 초봉이 3500만 원 선이지만, 지역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조선대의 한 취업센터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만큼 미래 지향적인 관련 기업 유치와 ‘혁신도시 시즌 2’를 통한 공기업 유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과 공장 등을 지역으로 투자유치 하는데 힘을 쏟는다면 지역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밤이 더 아름다운 사직공원 전망타워

14일 밤, 불을 밝힌 사직공원 전망타워 조명이 초록빛에서 보라빛, 푸른빛 등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권역이기도 한 사직공원 전망타워에는 도심형 미디어아트 GT타워 작품과 하늘을 비추는 불빛 조명이 어우러지며 광주의 새로운 야경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SVB 파산 여파...코스피 2.6% 급락

외국인 8860억 순매도

환율 9.3원 급등 1311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여파로 14일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낙폭을 키웠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61.63포인트(2.56%) 떨어진 2,348.97로 2,400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지수는 3.91% 하락한 758.05로 낙폭이 더 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았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6394억원과 2455억원 등 모두 8800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은 특히 코스피에선 218억원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시장에선 261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날만 해도 국내 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에 미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급락을 피했으나 일부 은행의 연쇄 파산 우려와 예금인출 등의 후폭풍이 매도 심리를 자극해 약세로

돌아섰다.

SVB 파산에 이어 뉴욕에 본부를 둔 가상화폐 전문은행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하면서 다른 지역은행도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3원 오른 1,311.1원으로 장을 마쳤다.

SVB 사태 여파로 미국 중소 지역은행 연쇄 붕괴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공포 심리는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기현·이재명 여야 대표 오늘 첫 회동

“민생 최우선으로 챙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당권 경쟁을 벌였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5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께서 민생 챙기기에 협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공감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일 잘하기 경쟁, 민생 잘 챙기기 경쟁을 하자

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김 대표 당선 다음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와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 삶을 구하는 데 매리를 맞대자”고 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대표는 “정무적 현안 때문에 경쟁 요소도 있는 것들은 다소 후순위로 하더라도, 적어도 민생 관련 현안은 최우선으로 챙기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